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74

다니엘과

세 친구

(다니엘 1:1~21)



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, 바빌로니아 군대는
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
자기 나라 수도인 ‘바빌론’으로 데려갔어요.

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은 포로들은
날마다 걷고, 또 걸었죠.
밤이 되면 잠깐 멈추어서 길가에 천막을 치고
쉬어 갈 뿐이었어요.

“나라 잃은 백성이 어딜 가서 무얼 할 수 있겠어.
죽기 전에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까...?”

남유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
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죠.
몇 날 며칠이 걸리는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그들은
바빌론에 도착했어요.
낯선 땅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
신기하게 쳐다봤죠.

“할머니,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?
다들 엄청 피곤해 보여요!”

“응.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들이라고 하는구나.
세상에, 많기도 하지.”

바빌론 사람들은 ‘유다에서 온 사람들’이라고 해서
포로들을 ‘유대인’이라고 불렀어요.

남의 나라 땅에서 생활하며.
자유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
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.

고향에서 우상을 섬겼던 잘못을 뉘우치고
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죠.
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, 에스겔, 다니엘 같은
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
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워 주셨어요.

오늘은 그중에서도, ‘다니엘’ 선지자의
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.

하루는 바빌로니아의 ‘느부갓네살’ 왕이
신하 ‘아스부나스’에게 명령했어요.

**“유대인 포로들 중에 모든 면에서
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골라 오거라.”**

**“예이~? 아니, 유대인 청년들을
어디에 쓰시려고...”**

**“유대인 가운데에도 좋은 인재들이
있을 것이다.
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 신하로 삼으면
이 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?”**

**그렇게. 포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
청년들을 왕궁으로 불러 왔어요.**

**튼튼한 몸과 잘생긴 외모, 거기에 교육을 많이 받아
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었죠.**

**“자, 이제부터 3년 동안
너희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신하가 되기 위한
교육을 받을 것이다!
앞으로는 무조건 바빌로니아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
책도 바빌로니아의 책만 읽어야 한다!”**

**아스부나스는,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
바빌로니아식 이름을 붙여주었어요.
이제 유대인 청년들은 왕이나 왕의 신하들 앞에서는
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대신
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써야만 했죠.**

이렇게 왕궁으로 불러 온 청년들 중에 ‘다니엘’과
‘하나냐,’ ‘미사엘’, 그리고 ‘아사랴’가 있었어요.
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히나 하나님께
순종하는 청년들이었죠.
그래서,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.

“이봐, 친구들. 다른 건 다 어떻게 참는다고 해도
왕궁에서 주는 이 음식들을 보게.
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지 않나!”

“하나님의 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지?
여기 왕궁 사람들은 이런 걸 먹어야
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모양이야.”

**“뭘 먹긴 먹어야 버틸 수 있을 텐데.
다니엘, 어쩌면 좋을까...?”**

고민 끝에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
하기로 다짐했어요.
그래서 다니엘이 대표로 왕의 신하를 찾아갔죠.

**“저희는 왕의 고기를 먹거나 왕의 포도주를
마실 수 없습니다.
부디, 이스라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
허락해 주십시오.”**

**“흠... 내 맘 같아선 그렇게 해 주고 싶지만
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.
너희가 왕에서 하사하신 이 최고급 음식들을
먹지 않았다가... 다른 청년들보다 야위거나
혈색이 좋지 않다면! 왕에서 나를 탓하시고
내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?
그러니 그냥 돌아가거라.”**

**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
이번엔 청년들을 감시하는 감독관을 찾아가서
용기 내 말했죠.**

**“딱 열흘만! 저희 말대로 해 주십시오!
열흘 동안 저희에게 신선한 채소와
깨끗한 물만 가져다주시면 됩니다.
열흘이 지나고 나서, 왕의 음식을 먹은
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?
저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말입니다.”**

**다니엘의 말에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었어요.
그래서 감독관은.
시험 삼아 열흘만 지켜보기로 했죠.**

그렇게,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
채소와 물이 주어지고 10일째!

아침이 밝자마자
감독관은 부랴부랴 네 사람부터 찾아갔어요.

**“이 녀석들, 분명 기운 없이 비슬비슬대고 있겠지?
제 녀석들이 풀 쪼가리만 먹고 펴도 힘이 나겠다. 흥!**

하지만 감독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.
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얼마나 밝고
건강해 보였는지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은
다른 청년들보다도 활기 있어 보인 거예요!

“아.. 아니, 이럴 수가! 마, 말이 안 되는데...!”

그날부터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.
그 뒤로도 꼭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을
어기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도
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죠.

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
축복해 주셨어요!
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 주셔서 네 사람은
배우는 속도가 아주 빨랐죠.
짧은 시간 안에 바빌로니아의 언어와
학문을 익힐 수 있었어요.

그렇게, 3년이 지나고

**“그동안 교육시킨 유대인 청년들을 데려오거라.
쓸만한 자들이 있는지, 내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.”**

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왔어요.
왕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
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 어려운 질문들도 던져봤죠.

**그 결과!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
충명한 사람이 없었어요!**

**“정말 대단하구나. 기대 이상이야!
너희 네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은
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 단연 뛰어나다.
이 땅의 내로라하는 마술사나 주술사들보다도
열 배는 더 뛰어나! 하하하!”**

**그렇게 다니엘, 하나냐, 미사엘, 아사라는
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어요.
왕은 그들을 신뢰했고, 네 사람은 오랜 시간
바빌로니아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!
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?**